

# 10월 광주·전남 고용지표 악화...취업자수·고용률 하락

### 10대·20대 중심 인구 순유출 현상 지속 경제활동인구도 줄어 광주 고용률 10개월만에 50%대...전남 실업률 0.7%p 상승

광주·전남 고용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취업자 수, 고용률 등이 일괄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1년 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광주시 고용률은 10개월만에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역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기업 등에서도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고용을 줄인 결과로 분석된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0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76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77만 6000명) 대비 1만 2000명(-1.5%)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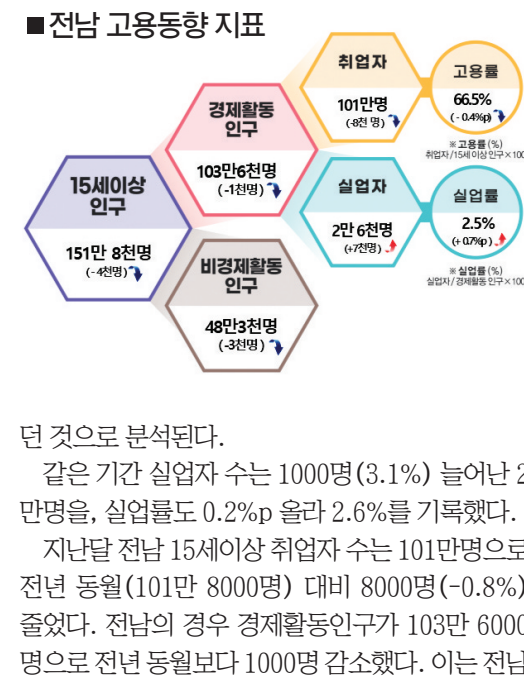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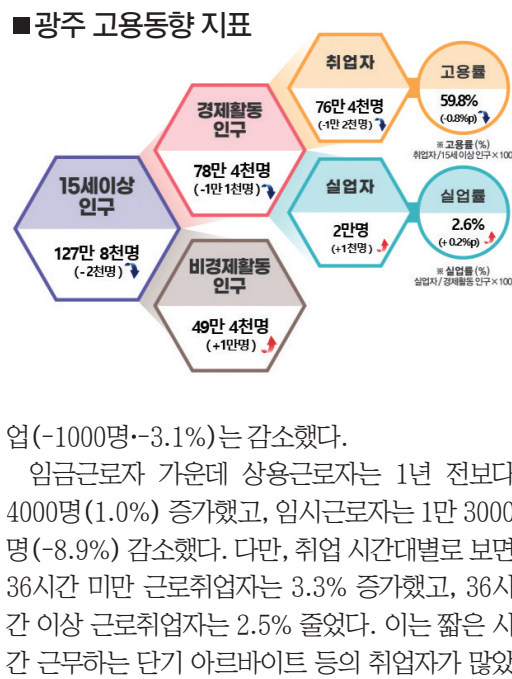
10대와 20대 인구를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 현상

도 지속되면서 경제활동인구도 줄었다. 광주시 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기준 78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1000명(-1.4%) 감소했다.

광주 고용률은 지난 10월 기준 59.8%로 전년 동월(60.6%)에 견줘 0.8%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2월(59.6%) 이후 최저치로, 10개월만에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했다.

올해 초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던 광주 고용률은 지난 3월부터 지속 하락세다. 광주시 고용률은 올해 3월(61.8%)→6월(61.5%)→9월(60.1%) 등 분기별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광주시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공공업(5000명·4.5%)은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지만,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1만 6000명·-2.4%), 농업어



지역 역시 전반적인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신혼부부 유입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하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의 젊은 세대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감소폭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전남 고용률은 66.5%로 1년 전보다 0.4%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3000명·2.5%)이 증가했고, 농업어업(-7000명·-3.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4000명·-0.6%) 등은 감소했다.

전남은 일자리 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남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보다 1만 1000명(-2.6%) 줄었고, 임시근로자는 4000명(2.4%)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지난달 전남 실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7000명(36.5%) 증가한 2만 6000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2.5%로 0.7%p 상승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미국에 밀리고 비트코인에 치이고...국내증시 회의론 확산

### 트럼프 당선 이후 투자자 이탈 가속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 붕괴

국내 증시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트럼프 랠리'를 펼치는 동안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이 깨지고, '대장주' 삼성전자가 5만원선을 위협받는 등 국내 증시에서는 비명이 난무하면서다.

장기간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에 실망했던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만 해도 20조원 수준이었던 코스피·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달 들어 15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는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이 7-8조원 수준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대선 이후 자기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주를 찾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하루 거래대금은 여전히 10조원을 넘나드는 수준이다.

연초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탔던 국내 증시는 2분기를 정점으로 하향 조정된 기업 이익과 불안정한 국제 경제 속에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국내 증시 투자의 인기가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수익률이다.

연초 이후 이날까지 세계 각국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미국 다우존스30평균지수 16.51%·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25.45%·나스닥 지수 28.45%, 일본 니케이225지수 15.71%, 중국 상해종합지수 15.61%, 홍콩恒生H지수 23.05% 등인데 반해 코스피는 -8.97%, 코스닥은 -20.42%로 홀로 소외됐다.

미국 대선 이후로 기간을 좁혀봐도 코스피가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힘입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9만 달러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진은 12일 서울 강남구 압도트 라운지. /연합뉴스

6.20%, 코스닥은 8.27% 급락해 일본 니케이225 지수(0.64%), 대만가권지수(-1.07%)보다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만 해도 코스피는 2.64% 하락한 2,417.08로 장을 마감해 '블랙먼데이'로 불리는 지난 8월 5일(2,441.55)보다도 낮아졌다.

대신, 투자자들의 관심은 국내 증시에서 미국 증시와 가상자산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거래대금도 폭증하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1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45분 현재 8만 8000달러선에서 거래 중이다. 원화로는 1억 2000만원 수준이다.

이날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지난 24시간 총거래대금은 34조 6074억원에 이른다. 전날 코스피 거래대금(12조 8480억원), 코스닥 거래대금(7조 4123억원)의 1.5배 수준이다.

수년 전부터 국내 증시 투자의 대안으로 부상한 미국 증시로 향하는 자금 역시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보관 금액은 지난 7일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2022년 말 442억달러 수준에서 채 2년도 되지 않아 2배 이상으로 뿔 것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은행 노조, JB금융 김기홍 회장 퇴진 촉구

### "3연속 연임 저지 투쟁 나설 것"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광주은행지부(이하 노조)가 13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B금융지주 김기홍 회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노조는 김기홍 회장의 3연속 연임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만 노조위원장은 "김 회장이 지역은행의 금융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한 이익목표 향상을 요구하며, 경쟁력이 없는 금융상품을 파생시켰다"며 "광주지역민 등 광주은행의 기반고객 이탈을 가속화 시켰고 지역상생이라는 기치보다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김 회장의 방침에 따라 광주은행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핵심사업으로 내세웠지만, 해당 상품은 실질연체율 12%, 누적손실만 255억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해당 사업 실패로 인한 연체율 상승으로 각 영업점이 연체관리를 강화하면서 영업력 손실을 입고 있는데도 김 회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만 노조위원장은 "지역은행 경영은 지역자금융역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와 금융을 지역민과 함께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광주은행의 영속과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은 금융노조 연대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 BYD 한국 진출 본격화

### 승용차 브랜드 출시 검토 완료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BYD(비야디)가 우리나라 승용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테슬라와 더불어 글로벌 전기차 선두 업체로 평가받는 현대차그룹이 지배하는 국내 전기 승용 시장에서 BYD가 내세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어떤 파급효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BYD의 한국 법인인 BYD코리아는 13일 "국내 시장에서 승용차 브랜드 출시를 위한 검토를 완료하고, 승용차 브랜드를 국내 출시한다"고 밝히며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다.

BYD는 전기차를 비롯해 이차전지, 태양광 패널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으로, 지난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에서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1위 전기차업체로 발돋움했다.

BYD는 자동차 트렌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2016년 전기 지게차·버스·트럭 등 국내 상용차 시장에 먼저 도전을 내밀었다.

이어 지난해 전기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와 전기 중형 세단 '실'과 전기 소형 해치백 '물린' 등 6개 모델의 상표를 국내 출원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전기 승용차 인증 절차를 밟아왔다.

BYD는 정부 인준에 앞서 한국 시장 판매·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마무리했다. 국내 BYD 판매는 판매회사인 도이모터스와 삼천리, 하모니오토 한국법인이 나눠 맡게 됐다.

특히 중국 최대 자동차 유통그룹 하모니오토는 BYD 차량 판매를 계기로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다. BYD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13월의 월급 얼마? ...내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절세 혜택 최대화 '팁' 함께 제공

국세청이 15일부터 '13월의 월급'으로 비유되는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능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다양한 공제·감면 등에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 전세자금대출 ▲ 주택청약저축 ▲ 교육비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월세액 ▲ 기부금 등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자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녹색에너지연 국제학회 기획세션 해상풍력발전 지역공존 방향 제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최근 열린 '2024년 AFOR(Asia-Pacific Forum on Renewable Energy) 국제학회'에서 해상풍력발전을 통한 지역 공존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국신재생에너지학회에서 주최하는 AFOR 국제학술회의는 범아시아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성과와 정책을 제시하는 학술의 장이다.

올해는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이라는 주제로,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지난 9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이번 학회에서 '해상풍력을 통한 지역 공존 계획'라는 주제로 기획세션을 운영해 총 4명의 발표자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을 통한 지역과의 공존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정보문화진흥원, 게임센터 공동관 운영

### 3일간 부산 'G-STAR 2024' 참여

(재)전남정보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 16일까지 3일간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G-STAR 2024'에서 전남글로벌게임센터 공동관(이하 JNGC공동관)을 운영하며 지역 게임관련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JNGC공동관은 전남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중소 게임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G-STAR 2024'에 방문한 국내외 게임 퍼블리셔를 대상으로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우수 게임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위해 B2B전시관을 운영한다.

이번 G-STAR 2024에서 JNGC공동관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8곳으로, MMORPG, 시뮬레이션, 공포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전시된다. 참가기업으로는 ▲썬퍼플렉스, ▲썬에니뉴, ▲주

식회사 팜, ▲썬웨이코더, ▲더호라이즌, ▲썬로컬엔컴퍼니, ▲썬보라엔터테인먼트, ▲썬니트로스로 현장에서는 게임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회도 열려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JNGC공동관에서는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외 투자사와 퍼블리셔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투자 상담과 협력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지난 10월 태국에서 열린 'Thailand Game Show 2024'에서 미팅을 가졌던 주요 게임 퍼블리셔와도 추가 비즈니스 협력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인용 진흥원 원장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게임콘텐츠를 알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특히 동남아시아 게임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연구원-한은 광주전남본부 공동연구 협약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3일 연구원 내 회상준회에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완근)와 전남지역 경제 현안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경제 현안 분석 및 경제전망 관련 공동 연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지역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세미나·포럼·강연 공동 개최 등을 진행한다.

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실질성 있는 경제·산업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역의 미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통해 양 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깊이 있는 현안 분석과 양질의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7.08 (-65.49)
↓ 코스닥	689.65 (-20.87)
↑ 금리(국고채 3년)	2.939 (+0.039)
↑ 환율(USD)	1404.75 (+1.25)